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2. 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미국, 상원에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 제출
2. 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검토
3. SPRFMO 연례회의, IUU 어업 근절 노력에 “비협조적”
4. 중국, 정부의 5년 정책에서 수산물 생산 전략 비중 높여
5. 스페인 어선 Villa de Pitanxo호 캐나다 연안에서 침몰
6. 기후변화로 인한 공유자원의 이동과 분쟁 가능성
7. EU와 미국의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

-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하는 법안 “미국-러시아 수산물 호혜법( U.S-Russian Federation Seafood Reciprocity Act)”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음
  - 이 법안은 게를 비롯한 모든 러시아산 수산물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법안은 이후 상원 공화당 과반수 의원이 제출한 유럽 영토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NYET) 법안에 담겨 있음
  - 현재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연합(EU)에서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수출은 계속하고 있어, 마-러 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
  - 미국-러시아 수산물 호혜법은 덴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공화당)과 리사 매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주/공화당)이 제출했음
    - 2월 15일자로 이 법안을 NYET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발표
  -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기간은 러시아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로 되어 있음
    - 러시아가 미국에 수산물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데 반해, 미국 어민과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러시아 시장에 접근이 어렵다는 부분은 많은 미국 어민들이 실망할만한 사실이라고 설명
    - 현재 러시아는 미국 어민을 희생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의 공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재 패키지 작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 분야를 두루 살펴보는 것이라며 수산물 수입 제한도 그 일부라고 설명
- 미국에 수입되는 러시아산 수산물은 게류, 대구, 허독 대구 등의 저어류, 청어와 연어 등 다양함
- '21년 기준 연간 약 5만 톤, 12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가 도입 중인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식품 수리 금지조치는 미국이나 EU 등의 경제 조치에 대항한 것으로 '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에 대해 미국과 EU 등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번에 새롭게 제출된 NYET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공화당 의원 50명 중 34명이 지지하고 있음

※출처: 미나토 신문<sup>1)</sup>, 알래스카 상원의원 댄 설리번 홈페이지<sup>2)</sup>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20533> ('22.2.25 검색)

2)

<https://www.sullivan.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senate-democrats-defend-russian-ban-on-us-seafood-imports>  
(22.2.25 검색)

### □ 대만,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안 발표

-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만의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안을 발표함 (2.8)
- 대만도 완화안을 발표하고 열흘 간 각계 의견을 수렴
  - 완화안이 채용되면 대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정지 조치는 없어지게 됨
- 9일 현재, 5개 현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 주류를 제외한 식품은 수입 중단이 됐지만 완화 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와 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할 수 있음
- 현행 수산물 수출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가 필요한 4개 지역 가운데 도쿄와 에히메는 해당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게 됨
-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21년 대만을 수출하는 "어패류 및 관련 가공품" 수출 금액은 전년비 35% 증가한 239억 5,000만 엔이었음
  - 주요 수출품목은 껍데기 없는 냉동 가리비(78억 3,000만 엔), 캐비어 대용품(20억 1,000만 엔), 덜 마른 해삼(17억 5,000만 엔) 등임
  -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37배 수준으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엔을 넘어섰음
- 일본 수산물 수출국으로는 금액 기준으로는 4번째로 비중이 큼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2025년에 5조 엔, 2030년에 5조 엔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만에서 시장 확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만에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힘
-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이후, 55개 국가 및 지역이 수입 규제를 도입시켰고, 현재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4개로, 홍콩, 중국, 대만, 마카오, 한국의 5개국 지역은 일부 도도부현에 대한 수입금지를 계속하고 있는 품목이 있음
- 대만의 완화안 내용 중에서도 후쿠시마, 치바 등 5개 현에서 나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정지를 계속한다는 부분은 남아 있음

※ 출처: 미나토 신문<sup>3)</sup>

---

3)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20315> (‘22년 2월 25일 검색)

- 남아메리카 어업 산업 단체인 남태평양 대왕오징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Southern Pacific Jumbo Flying Squid, CALAMASUR)는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강력한 조치를 합의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비판하였음
  - 제10차 SPRFMO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대왕오징어(Dosidicus gigas)의 IUU 어업 위기를 대항하기 위한 제안서를 논의하였으나 회원국의 합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음
    - 남아메리카의 서쪽 협약 수역에서 어획되는 대왕오징어는 세계 오징어 어획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SPRFMO는 2028년까지 모든 대왕오징어 어업 선박에 대하여 승선 옵서버 탑승, 대왕오징어 전채를 항구에서만 허용, 및 새로운 어획 노력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채택하지 못하였음
  - SPRFMO에 따르면 대왕오징어 어업은 IUU 어업에 노출되어있으며 특히 중국의 원양어선 선단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중국은 현재 SPRFMO 수역에서 358,000 미터톤의 대왕오징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의 Galapagos 해양 보호구까지 위협을 한적 있어 더욱 해당 어업을 보호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불법 조업은 세계에서 6번째로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특히 해외 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2019년 착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

계 불법 어업에 기여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등급을 받았음

- 생물학자들은 대왕오징어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 멕시코, 일본 및 아르헨티나의 대왕오징어 자원량이 실종된 사례처럼 또다시 자원량 감소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

※ 출처: SeafoodSource<sup>4)</sup>

---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prfmo-risks-non-cooperative-consideration-in-fight-against-iuu-calamasur-warns> ('22년 02월 25일 검색)

□ 중국은 2022년 2월에 발표한 2025-2030년 5개년에 대한 개발 계획에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 및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음

-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양식 및 야생 어획된 어류를 포함하고 있음
- 중국 정부 내각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목표치가 6450만 미터톤(MT)이었던 한편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목표치가 6900만 MT에 도달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제15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중국 농업 현대화 발표(Announcement of Modernization of Chinese Agriculture Under the 15th Five Year Plan)

- 이 수치는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인 5500만 MT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이를 뛰어넘은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음
- 중국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원양-바다 어업 요충지\*(distant-water fisheries hub)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서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중국 원양 업계가 지을 수 있는 어항 및 처리 시설

- 현재 중국이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에서 짓고 있는 어업 항구 및 가공 공장 요충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의미함

- 또한 개발 계획 문서에 따르면 국내 양식업에서 더 강력한 환경 규제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출처: SeafoodSource<sup>5)</sup>

---

5)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sets-69-million-mt-seafood-production-target-for-2025-pledges-more-distant-water-hubs#:~:text=Chinese%20seafood%20output%20%E2%80%93%20combining%20seafood,Agriculture%20Under%20the%2015th%20Five> ('22년 02월 25일 검색)

## □ 24명 선원 중 10명 사망, 11명 실종

- 스페인 어선 'Villa de Pitanxo'이 2022년 2월 15일 캐나다 동부 연안에서 침몰하여 최소 10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구조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어선에는 16명의 스페인 선원, 5명의 페루 선원, 가나 선원 3명 등 총 24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알려짐
- 스페인 미디어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항구도시 할리팩스에 위치한 구조센터에서 캐나다 공군과 연안경비대가 헬리콥터, 비행기, 구조선 등을 파견하여 뉴펀드랜드 해안 250마일을 수색하고 있음
- 침몰한 선박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명보트에 탑승한 3명의 선원이 발견되었으며, 3명 모두 차가운 바다에 노출되어 심각한 저체온증을 겪고 있었음
- Villa de Pitanxo호는 새벽 1시경 거친 바다 한 가운데서 침몰하였으며, 사고 지점 인근에 있던 두 어선이 시신 10구\*를 발견하였음
  - \* 구명보트에서 3구, 바다에서 4구
-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Villa de Pitanxo호는 구조신호(mayday call)를 보내지 않았음
-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임

- 사고 당시 Villa de Pitanxo호는 북서대서양수산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수역에서 저층 트롤 어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출처: Seafoodsource<sup>6)</sup>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10-dead-11-missing-after-spanish-trawler-sinks-off-canada> ('22년 2월 24일 검색)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두 개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로지르는 어족자원의 45%는 원래의 역사적 서식지 및 회유경로로부터 중대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달성되는 2030년까지, 이 “초국경” 어족자원의 23%는 서식지 범위가 변동될 것. 연구는 또한 대부분의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78%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어족자원이 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전체 어족자원의 45%로 높아지고, EEZ의 81%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자원이 이동하게 될 것.
- “이것은 자원이 EEZ를 떠나거나 새로운 EEZ로 이동하는 이슈만이 아닌, 국가간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이슈로서, 역학의 완전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UBC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한 Juliano Palacios-Abranted 박사가 말했음.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초부터 이러한 이동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 그는 말했음.
- “현재의 배출 정도를 고려할 때, 2030년이 되면 우리는 보다 급격한 변화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공유자원을 규율하기 위한 어업관리 협정들은 지난 수십년 간 수립된 것으로, 오늘날 세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규칙들이다.”고 말했음
- 연구의 대상시기는 2006년부터 2100년까지로서, 국경 간 이동하는 9,132개 어족

자원의 이동 범위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세계 EEZ 내 어획의 80%에 해당하는 것.

- 자원 분포의 변화는 어획에 영향을 미칠 것. 2030년까지, 세계 EEZ의 85%는 통상적인 연간 어획 변동폭을 넘어서는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함. 연구진에 따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초국경 어획물의 경제적 가치가 약 760억 달러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국가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어 자원의 분포 변화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 어업협정이 영향을 받았고, 이 자원의 초과어획 문제가 발생했었음. 이러한 갈등은 미래에 더욱 부각될 것이고, 국제협정들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Palacios-Abrantes 박사는 말했음.
- 카리브해 및 남아사이와 같은 열대지역이 수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지만, 북부 국가들도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 태평양에서 미국과 캐나다 간 10개의 공유자원이 2033년까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예상되는 변화들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추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정한 정책을 협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공한다”고 공동저자인 Colette Wabnitz는 말했음.
- 연구는 선단들이 주변국가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하고, 어획 또는 이익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과 같은, 잠재적인 분쟁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
- 이는 또한 기존의 어획할당 합의들을 재조정 및 재협상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향후의 모든 행동은 전망되는 변화들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했음.

-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업관리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공동저자인 Gabriel Reygondeau는 말했음.
-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원 이동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을 방지하고 산업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음. “우리는 기후모델과 시나리오를 통해 잠재적인 변화와 갈등이 언제 어디에서 부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과학자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되고, 다음 질문만 남게 될 것임 : 정치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기초자원 및 생산에 대한 영향을 지금 다루고 싶어하는가?”

※ 출처: [www.sciencedaily.com](http://www.sciencedaily.com) 7)

---

7) (2022년 1월 18일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22/01/220118094137.htm>

- EU 환경, 해양, 수산 장관 Virginijus Sinkevičius는 2월 첫째 주 미국을 방문하여 다가오는 다자회의들을 위한 EU-미국 환경 협력을 강화했음. 협력 이슈에는 기후변화, 삼림 파괴, 생물다양성 보호 및 회복, 순환 경제, 핵심 원료 및 배터리,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국제 해양거버넌스, 플라스틱 오염 및 녹색 전환 등이 포함됨.
- 장관은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미국 행정부, 의회, 다자기구, 이해관계자, NGO, 업계 및 금융권 대표자, 자선사업가 및 학생 등 광범위한 대상과 논의를 했음. UN에서의 논의에서, 장관은 2022-2023년에 개최되는 주요 회의, 협상 및 과정 준비의 일환으로, 환경 및 해양 관련 핵심 이슈들에 관한 EU와 미국의 공동 노력에 초점을 두었음.
- Virginijus Sinkevičius 장관은 미국 방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음:
  - 3대 위기(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이를 혼자서 다룰 수도 없다. 세계 2대 경제권으로서, EU와 미국은 각자의 경제 운영 방법을 변혁하고 대서양 양측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높은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간 더욱 협력해야 한다.
  - 나는 양측이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상호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EU와 미국은 공동으로, 순환 경제로의 전환, 자연 회복, 경제의 탈탄소화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근절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변자가 될 것이다.

- 방문 기간 중 장관은 미국과 함께, 현재 환경 및 기후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남용을 막는 일의 긴급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게 다자 조치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EU 및 국제공동체와 힘을 합칠 것을 촉구했음. 여기에는 국가관할권 이원해역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조약(BBNJ)을 위한 협상, 생물다양성 협약 하에서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에 관한 야심찬 계획 그리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에 관한 협상의 시작 등이 포함됨.
-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은 환경 및 해양 분야에서 여러 공동의 관심들을 확인했음. 이는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더 나은 회복을 도모하려는 미국의 우선순위와도 분명한 연결점을 가짐. 양측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및 협업을 통한 접근이 상호 많은 이득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음.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환경 협력 강화)** Michael Regan 장관과의 회의에서 EU와 미국은 순환 경제, 오염, 플라스틱, 그리고 환경 정의와 같은 여러 공동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미래 협력에 대한 지침을 위해 양측은 환경 DG와 미국 환경보호청 간 협업 매커니즘을 업데이트하였음.
  - **(플라스틱)** EU는 플라스틱에 대해 순환적, 주기적 접근을 취하는, 세계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요청하고 있음. 미국은 2022년 2월 UN 환경 총회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지지함을 표명했음.
  - **(순환 경제)** 장관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 경제의 유익을 향유할 것을 장려하고, 경제회복 및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지원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방문을 통해

미국의 10년 계획 “모두를 위한 순환 경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EU의 순환 경제 행동계획의 경험이 유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 **(생물다양성)** 올해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될 2020년 이후의 야심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미국의 긍정적인 입장의 확인. EU와 미국은 3국에 대한 공동활동과 관련한 옵션을 논의하고, 자연에 토대를 둔 해결책, 생물다양성/기후 간 관련성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증가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였음. EU와 미국은 2030년까지 자신들의 육지와 바다의 30%까지 보호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미국과의 논의에서 장관은 자연 회복, 북극 환경 보호, 해양 및 환경 보호의 지정학적 결과, 자연 친화적인 농업관행의 채택 그리고 해로운 보조금의 중단과 같은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음.
- **(해양)** EU와 미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싸움 그리고 보다 나은 해양 거버넌스, BBNJ 협상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했음. 양측은 또한, 국제 생물다양성 및 기후협상에서 해양 및 기후 간 관련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삼림 파괴)** 장관은 삼림 파괴에 관한 최근의 EU 제안서의 중요성 및 구상에 대해 미국 의회로부터 고무적인 신호를 받았음. 장관은 미국도 동일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의회의 삼림법과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삼림 전략이 불법 삼림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고, 이는 전체 글로벌 삼림 파괴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임.
- **(극지 이슈)** 장관은 남극해양물자원보존협약의 맥락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미국에게 계속해서 장려했음. 그는 업데이트된 EU 북극정책에 따른 EU의 야심찬 목표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탄화수소의 조사 및 사용 중단이 포함되어 있음. 그는 또한 북극에 대한 향후 미국 전략과 관련하여, 북극에 대한 EU-미국 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접근을

희망함을 표명했음.

- **(지속가능한 금융)** 장관은을 다자 개발은행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David Malpass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를 포함한 상대방들과 녹색금융, 특히 생물다양성 금융의 증가 필요성을 논의했음.

※ 출처: ec.europa.eu 8)

---

8) (2022년 2월 4일 기사)

[https://ec.europa.eu/environment/news/eu-and-us-strengthen-cooperation-climate-and-environment-ahead-major-global-meetings-planet-2022-02-04\\_en](https://ec.europa.eu/environment/news/eu-and-us-strengthen-cooperation-climate-and-environment-ahead-major-global-meetings-planet-2022-02-04_en)